

호스피스 큰 돌 아보며

한노라 수녀
 춘천 성 골롬반 호스피스



지난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 제 9회 정기 총회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대회년을 맞이하는 이 시기에 세계 또한 큰 영광을 주신 하느님과 협회 회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.

부끄러운 마음 앞서지만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고, 다시 한번 10년 전 호스피스 시작 할 때의 마음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

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처럼 십 년 동안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. 협회가 시작되기 전 일년간 관심 있는 분들과 모임을 갖은 적이 있으며 호스피스에 대하여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였습니다. 그 때 그 마음으로 모든 분들이 협회에 관심과 도움이 더욱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.

처음에 시작 시작했을 때 호스피스 개념에 대하여 알고있는 분이 많지 않았고 다른 호스피스 단체도 없었습니다. 그 동안 한국 호스피스 협회와 완화의료학회가 발족되었으니 호스피스가 정

착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.

기관간에 계속된 연구로 서로 정보교환과 지지가 잘 이루어져 장단점을 보완하고 협력한다면 현재의 호스피스가 발전되어 하루빨리 한국실정에 맞는 호스피스가 정착 되리라고 봅니다.

또 한국 가톨릭 호스피스협회에 간호 부분의 발전으로 많은 교육기회를 접할 수 있어 환자와 가족에게 보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니 앞으로도 연구와 발전이 되었으면 합니다.

그리고 호스피스는 종교를 초월해서 타 종교인의 믿음과 가치관을 존경하며 어느 곳이든 어느 종교이든 똑같은 사랑으로 보살핌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. 우리 모두 이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의미를 되새겨 보았으면 합니다.

성골롬반 호스피스에서 교육이 있을 때마다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호스피스 협회의 아낌없는 도움으로 성공적인 교육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후원 바랍니다.

끝으로 한국에 와서 협회에 봉사하시는 분들, 활동을 통해서 만나는 환자와 가족, 이 기회를 주신 하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협회의 발전에 협조하고 모든 분들이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정리 할 수 있게끔 마지막 여정의 친구가 되어 주리라 하느님께 약속드리며 아울러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